

경기도무형문화재

제8호 승무 살풀이 춤
보유자

김복련





고 윤학 이동안 선생

승무·살풀이 춤은 수원 지방의 재인청(才人廳)에서 계승된 민속무용으로 승무는 민속무용의 정수로 손꼽히며 불교의 교리의 입장에서 본 불교 기원설에서 유래하였다. 기원설이 여러 가지 전해져 내려 오고 있는데, 승무의 긴 장삼 소매를 잘 승화시킨 춤이다.

그 발달 과정은 첫번째로 소리 광대를 주축으로 부잣집 생일잔치에 초대되어 판소리나 승무를 추어왔으며, 두번째로 1905년경 우리 나라에서는 최초의 서구식 극장인 원각사가 세워져 광대나 기녀들의 판소리, 정재, 승무 등을 공연하면서 발전되어 온 것이다.

살풀이춤은 민속음악 가운데 살풀이라는 남도음악 장단에 맞추어 추는 춤이며, 원래 무당들이 신을 접하기 위한 수단으로 추었던 춤인데, 훗날 광대나 기생들에 의해 교방예술로 발전되어 춤의 내용이 한층 예술적으로 다듬어졌고 아름다운 기법과 형식으로 계승, 발전되고 있다.

이 살풀이춤은 고운 머리에 비녀를 꽂고 흰저고리와 치마에 버선, 그리고 옷고름이 늘어진 의상과 하얀수건을 쥐고 추는 것이 특징이다.

수원에서의 승무·살풀이춤은 정조대왕(正祖大王)의 행궁(行宮)이었던 화령전(華寧殿)의 풍화당(風化堂) 내 재인청에서 계승된 것으로 조선 말 재인청의 우두머리였던 마지막 도대방(都大房)인 이동안(李東安)의 세습무(世襲巫)를 거쳐 옥당(玉堂) 정경파(鄭慶波)에 의해 그 맥을 이어졌다. 이 춤의 보유자였던 정경파는 본래 충북 옥천 태생이지만 그의 선친을 따라 진주에서 살았는데, 진주권번에서 소리를 배워 오다가 한성준(韓成俊)·박성준에게서 춤과 창을 사사받았다. 그 뒤 화성재인청 출신인 김인호(金仁鎬)에게서 춤을 배워 당시 춤의 명인으로 이름이 나있던 이동안의 영향을 받아 승무·살풀이춤·타령·굿거리·검무·농악·신칼대신무 등을 사사받았다.

승무는 승려무용, 살풀이춤 또는 궁중무와 탈춤의 영향을 받아 교방예술로 발전된 것으로 경기형 승무의 특징을 이루는 한성준 계통의 춤사위와 남도살풀이춤을 겸비하여 전수하여 나름대로 독특한 수법으로 다듬어져 내려 오고 있다. 1991년 경기도 무형문화재 제8호로 지정되었으며, 보유자는 김복련이다.

(출처 : 한국민족문화대백과 <http://encykorea.aks.ac.kr>)



▶ 경기도무형문화재 제8호 승무 살풀이춤 1대 보유자 고 정경파

보유자 김복련



경기도 무형문화재 제8호 승무·살풀이춤은 화려한 기교를 절제한 단아함이 매력이다. 현재 이때방류(호남류) 승무·살풀이의 춤동작이 재고 경쾌한 데 반해 경기도의 승무살풀이는 호흡이 길고 밑으로 깔리는 가락이어서 다소 난해하지만 그 근엄한 깊이는 이루 말할 수 없다.

보유자 김복련(1948년)은 고 운학 이동안과 옥당 정경파 선생에게 승무살풀이 등을 전수받았다. 그리고 지난 91년 정경파 선생이 무형문화재로 지정되면서 이수자의 길을 걸었던 그는 95년 전수조교로 발탁, 재인청 춤의 발굴에 앞장섰다.

구한말 화성 재인청은 전문예인이 갖추어야 할 전통무용, 국악, 판소리, 땅재주, 줄타기 등을 교육하였으며, 일정한 소질을 갖춘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을 만큼 권위를 가지고 있었다.



[illegible]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나비근레라 金福蓮











전수조교 신현숙



전수조교 신현숙



전수조교 최선라



전수조교 최선라

경기도무형문화재 제8호 승무와 살풀이춤



한국예술사에서 광대(廣大)라는 신분 집단은 공식적으로 우리나라의 민속 연회를 담당해 왔던 집단이었으며, 우리나라의 주요한 민속예능들을 대부분 성립, 발전, 유지시켰던 예능집단이다. 조선시대 전기까지 우리나라의 예능집단은 남사당이 전부였지만, 중앙과 지방의 산대희와 나례희, 과거급제자와 관련된 행사 등 관청 주도의 정기적인 행사 등으로 관청에서는 일정한 규모의 광대 집단 조직이 필요하였던 것이다.

임진·병자의 양란 이후 조정의 악사가 크게 줄어들어 각 고을의 광대들을 징발해서 해마다 몇 명씩 봉상(捧上)하게 되자 그 일을 수행하기 위하여 광대들은 자치기관인 무계(巫契)를 전국적인 규모로 조직하게 되었다.¹⁾ 이 조직은 재인청(才人廳), 광대청(廣大廳), 화랑청(花郎廳), 신청(神廳)이라고 불리었으며, 여기에 속한 광대들은 주로 무당(巫堂)과 무부(巫夫), 그리고 그 가족들로 구성되었다.

1) 신현숙, “화성재인청류 승무의 구조적 분석”, 용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p.5

재인청의 재인들은 나례(儼禮), 중국 사신 영접 행사, 과거급제자 축하잔치인 문희연(聞喜宴), 읍치제의(邑治祭儀), 동제(洞祭), 임금이 선왕의 위패(位牌)를 종묘(宗廟)에 모시는 부묘(祔廟)를 마치고 궁중으로 돌아올 때, 임금이 종묘에서 제사지낼 때, 공자 등 유학의 성인을 모신 문묘를 참배할 때, 왕자와 공주의 태를 태봉(胎峰)에 묻을 때, 왕의 각종 행차 시, 정월 보름에 궁중에서 풍농(豐農)을 기원하기 위해 행하는 일종의 모의농경의례(模擬農耕儀禮)인 내농작(內農作)을 거행할 때, 새 감사의 부임을 환영할 때 등 각종 행사에 동원되어 연희를 펼쳤다.²⁾ 즉, 관과 민의 행사에 모두 참여하였던 대령광대의 전문적인 집단이었다. 재인청은 경기도, 전라도, 충청도에 존재하였고 경기도 수원에 있었던 화성재인청은 수원 지방에 거주하는 재인들은 물론 안성, 용인, 광주, 안산 등지에 사는 재인들까지 화성재인청에 무적(無籍)으로 입계(入啓)하였으므로 인원은 방대하였다. 화성재인청은 우리나라 중앙부에 위치했던 지리적인 환경 요건으로 조선시대 중앙에서 개최되었던 여러 행사에 자주 동원이 되었다.

경기도무형문화재 제8호로 지정된 화성재인청 계열의 춤인 승무와 살풀이춤 뿐만 아니라 수원에서 공연·교육되고 있는 화성재인청의 춤들은 화성재인청의 마지막 광대인 이동안에 의해서 전수되었다. 이동안(李東安)은 1906년 경기도 화성군에서 출생하였다. 할아버지 이하실(李夏實)과 아버지 이재학(李在學)을 이어 이동안도 화성재인청의 우두머리 역할을 하는 도대방(都大房)을 지내게 된다. 이동안의 할아버지 이하실은 단가와 피리를 잘하는 인물이었고, 작은 할아버지 이창실(李昌實)은 줄타기의 명수였다. 이동안은 14세 때 남사당을 따라 나가 그곳에서 김석철에게 일정한 기예를 배우게 되었다. 그 후 광무대로 진출하면서 이동안은 김인호에게 춤과 장단을 배웠고 김관보에게 줄타기와 땅재주를 배웠다. 박춘재에게 탈춤을 그리고 해금, 대금, 가야금, 태평소, 잡가 등 다양한 기예를 두루 섭렵을 하여³⁾ 각종

연희, 굿판 등에서 뛰어난 예술적 기량을 보여주었다. 이동안에게 춤을 가르친 김인호는 경기도 용인 태생으로 화성재인청 출신이면서 협률사(協律社) 단원으로 전국을 유랑하며 각종 민속연희에 참여한 광무대의 인기 있는 재인이었다. 또한 재인청의 모든 춤의 유형과 그 장단에 정통한 인물이었던 까닭에 그 당시 이동안에게 사사한 30여 종의 춤과 장단은 오늘날 재인청계열의 춤을 정립할 수 있는 기반이 되었다.⁴⁾

한일합방을 지켜보았으며 일제 강점기를 통과하는 역사적 격변기를 살면서 이동안은 줄잡아, 광대, 춤꾼 등 다양한 기예로 이름을 얻게 되었다. 전국 각지를 유랑하며 전통예능의 현장을 두루 체험하였고, 24세 때 수원 권번에서 춤선생을 하였다. 1983년 이동안은 중요무형문화재 제79호 발탈의 예능보유자가 되었고, 수원 화령전(華寧殿)⁵⁾에서 승무와 살풀이춤, 신칼대신무, 태평무, 진쇠무, 팔박수건무 등의 화성재인청 춤을 전수하였다. 그 후 화성재인청의 복원을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한 채 1995년 화령전에서 세상을 떠나게 되었다. 아래의 화성재인청 춤 계보에서도 나타나듯이 이동안이 화령전에서 전수한 화성재인청의 춤 중 승무와 살풀이춤이 1991년 경기도무형문화재 제8호로 지정되었으며, 제1대 예능보유자 정경파에 이어 현재 예능보유자 김복련(金福蓮)이 수원시 무형문화재전수회관에서 전수하고 있다. 김복련은 2002년 제2대 예능보유자로 인정받은 후 2003년 (사)화성재인청보존회를 설립하여 지금까지 화성재인청 춤을 전수하고

2) 전경옥, “화성재인청의 역사와 위상”, 화성재인청 재조명, 수원문화재단, 2017, p.2

3) 심우성, “소중한 민속예술인과의 만남”, 도서출판 우리마당, 2011, p.14

4) 정주미, “이동안 춤세계 연구”,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8, p.9

5) 화령전(華寧殿)은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신평로 23번길 34 (신평동)에 있는 조선시대의 제사유적으로, 순조가 정조의 어진(御眞)을 봉안(奉安)하고 제사를 지내던 곳이다. 1963년 1월 21일 대한민국의 사적 제115호로 지정되었다.

있다. (사)화성재인정보존회는 5명의 이사진과 화성재인청의 이론정립을 위한 학술부, 화성재인청의 춤, 소리, 기악, 시조, 풍물 등 5개 분과의 예능부로 약 100여명이 넘는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故 이동안
(화성재인청 출신 예인)



故 정경파
(경기도무형문화재 제8호 승무·살풀이춤 1대 예능보유자)



김복련
(경기도무형문화재 제8호 승무·살풀이춤 2대 예능보유자)



신현숙 최선라

(경기도무형문화재 제8호 승무·살풀이춤 전수조교)



이수자 (110명) 전수자(20명)

경기도무형문화재 제8호 승무



▶ 이동안 승무



▶ 김복련 승무

경기도무형문화재 제8호로 지정 되어 있는 승무는 성직자의 길을 걸으며 얻게 되는 번민과 고뇌를 춤으로 승화시키는 것으로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불교적인 성향을 내재하고 있다. 승무의 동작에서 나타나는 기교적 형태의 틀이나 반복적 구성면에서는 불교의 윤회사상에 입각하여 천지인 합일사상과 여백사상 그리고 음양사상이라는 한국과 동양의 정신적인 세계를 내재하고 있다. 이동안의 구술에 의하면⁶⁾ 깊은 산사에 상좌가 스승을 모시고 있었는데 스승이 병환을 얻어 말을 못하게 되었다. 상좌는 온갖 정성을 다 들이게 되지만 백약이 무효하였다. 백일기도를 들이던 중 어느 저녁에 꿈을 꾸었는데 어디선가 음악소리가 들리면서 도승이 내려와 삼현육각(三絃六角)을 놓고 북을 치면서 승무를 추었다고 한다. 도승은 상좌에게 이렇게 해보고 스승의 병환이 낫게 되면 이 절을 떠나라며 홀연히 사라졌다고 한다. 상좌가 도승의 말대로 행하여 보니 스승의 병이 씻은 듯이 낫게 되었다고 한다.

6) 신현숙, “화성재인청류 승무의 구조적 분석”, 용인대학교 대학원, 2003, p.11



상좌는 승복을 벗어 부처님께 올린 후 절에서 내려와 속세에서 그리움을 달래며 꿈에서 본 춤을 추게 되었고, 그것이 화성재인칭 승무로 이어진 것이다.

유래에서 상좌가 승복을 벗어 부처님께 올린 후 절을 떠나는 대목이 있다. 화성재인칭 승무도 고깔과 장삼을 벗어 북에 걸친 후 떠나는 아쉬움을 표현하는 마지막 춤사위로 구성 되어 있다. 이는 다른 류(流)의 승무와 확연히 구별되는 부분이며 철저히 유래를 따르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다. 병이 든 스승을 위하여 꿈에서 본 승무를 추고 그 절을 떠나는 것은 스승을 효제(孝悌)라는 혈연적이고 본능적인 사랑을 기본으로 하는 애인(愛人)의 감정이 발동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이것은 사람에 대한 배려의 마음인 측은지심(惻隱之心)이 춤사위로 표현되어 마지막까지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스승을 살리는 살신성인(殺身成仁)이라는 철학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⁷⁾

7) 신현숙, “민속춤에 내재된 정신세계에 관한 연구-화성재인칭류 승무를 중심으로-”, 비교민속학회, 2017, p.155

경기도무형문화재 제8호 살풀이춤



▶ 이동안 살풀이춤



▶ 김복련 살풀이춤

경기도무형문화재 제8호로 지정 된 살풀이춤 또한 독특한 배경설화로 그것이 무복과 춤사위에 그대로 반영되어 이야기 속 감정을 표현하고 있다. 살풀이춤의 제1대 예능보유자 정경파(鄭慶波)에 의하면 “어느 아버지가 병이 들어 약을 먹어도 낫지 않고 굶을 해도 안 낫고 백약이 무효라서 그의 외동딸이 백일기도를 하였다고 한다. 그러자 백발할아버지가 내려와 너의 아버지는 살이 너무 많이 끼었으니 흰색 옷고름에 흰색 치마저고리를 입고 춤을 추고 수건을 던질 때 수건 날려 살(煞)을 풀어내면 살고 죽으면 죽을 것이니 죽는 순간을 못 보므로 상복(喪服)을 하라”⁸⁾고 했다 한다. 이것은 부모의 병을 고치기 위하여 온갖 고행을 견디고 자신의 일신을 바친다는 정성 어린 효녀담으로서 백행의 근본인 효의 사상이 밑바탕에 짙게 깔려 있는 것이다.

8) 신현숙, “경기도무형문화재 제8호 살풀이춤”, 경기문화재단, 2008, p.23, 재정리



▶ 경기도무형문화재 제8호 승무 살풀이춤 1대 보유자 고 정경파

화성재인청 살풀이춤이 두 개의 수건으로 이루어낸 배경설화속의 춤사위를 살펴보면 뒤에 놓여 진 수건 하나는 병든 아버지이고 상징하는 것이다. 춤의 마무리에서 놓여 진 수건을 들어 올려 수건 두 개로 추는 춤은 궁극적으로 병든 아버지를 일으켜 살려냈다는 환희의 순간을 승화시키고 있는 것이다.⁹⁾

9) 신현숙, “화성재인청 살풀이춤의 미적 특성”, 한국무용기록학회, 2014, p.9, 재정리

松岳 김복련 경력사항



출생 : 1948년
지정일 : 2002년

사사과정

- 1960년 김동술옹께 장고춤, 타령춤 사사
- 1965년 김정희선생님께 기본무, 부채춤, 장고춤 사사
- 1989년 옥당 정경파에게 재인청 기본무, 승무, 살풀이춤, 신칼대신무 사사
- 1992년 운학 이동안에게 재인청 기본무, 승무, 살풀이춤, 진쇠무, 태평무, 신칼대신무 사사

활동 경력

- 2000년 김복련 '첫춤판' 공연
- 2001년 故 옥당 정경파선생 추모공연
- 2002년 해설이 있는 화성재인청의 춤 그 맥 2002 “松岳 김복련의 춤”
국립국악원 화요상설 “김복련의 춤”
- 2003년 화성재인청의 예인 故 이동안, 故 정경파 추모춤극
- 2004년 (사)화성재인청보존회 창단공연 “부활하는 화성재인청”
松岳 김복련의 춤 “나빌레라”

- 2005년 해설로 풀어보는 화성재인청의 춤 2005 “연화무”
- 2006년 가무악으로 풀어보는 화성재인청 “정조대왕의 효1”
- 2007년 화성과 어우러지는 무형문화재 “松岳 김복련의 춤”
- 2008년 화성의 맥과 어우러지는 국악한마당
“松岳 김복련의 화성재인청의 무”
- 2009년 가무악으로 풀어보는 화성재인청 “정조대왕의 효2”
화성의 맥과 어우러지는 국악한마당
- 2010년 화성재인청의 춤 “운학 이동안의 원류”
화성의 맥과 어우러지는 국악한마당
- 2011년 가무악으로 풀어보는 화성재인청의 무향 “정조대왕의 효”
- 2012년 경기도무형문화재 제8호 松岳 김복련의 춤
- 2013년 제50회 수원화성문화재기념 松岳 김복련의 춤
- 2014년 경기도무형문화재 제8호 松岳 김복련과 제자백가의 춤Ⅰ
세월호 추모공연 “따뜻한 길”
제2회 수원화성 유랑콘서트
- 2015년 경기도무형문화재 제8호 松岳 김복련과 제자백가의 춤Ⅱ
제3회 수원화성 유랑콘서트
- 2016년 경기도무형문화재 제8호 松岳 김복련과 제자백가의 춤Ⅲ
제4회 수원화성 유랑콘서트 “천지신명”
- 2017년 경기도무형문화재 제8호 松岳 김복련의 제자백가의 춤Ⅳ
제5회 수원 유랑콘서트 “유란극단 재인청”

현재

경기도무형문화재 제8호 승무·살풀이춤 예능보유자
(사)화성재인청보존회 이사장

경기도무형문화재 제8호
(승무 · 살풀이)
故 옥당 정경파선생추모공연

- 일시 : 2001년 5월 12일 (토) 오후 3시
- 장소 : 경기도 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 주최 : 경기도 무형문화재 전통무용보존회
- 후원 : 경기도, 수원시, 경기문화재단, 한국국악협회 경기도 지회

2001년

화성재인청의 춤 그 맥 2002

“예혼이 숨쉬는 공간” 국립국악원 화요상설
제378회 무형문화재 무대종목 공연

金福蓮의 춤



2002년 10월 29일(화) 오후 7시 30분
국립국악원 우면당

Oct. 29th (Tue), 7:30pm, 2002
U-Myeon Dang, The National Center for Korean Traditional Performing Arts

 국립국악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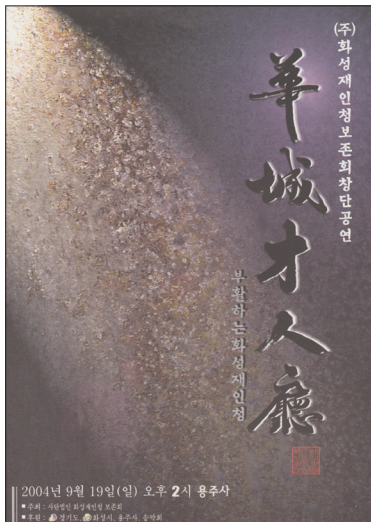
2002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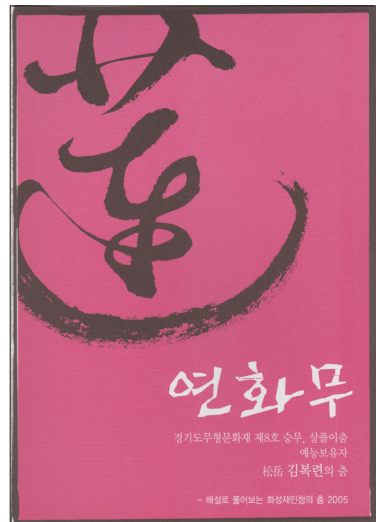
2003년



2004년



2004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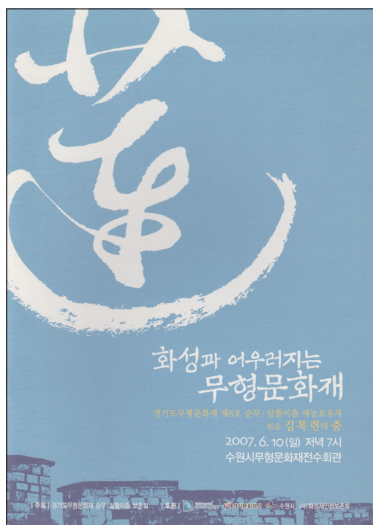
2005년



2006년



2007년



2007년



2008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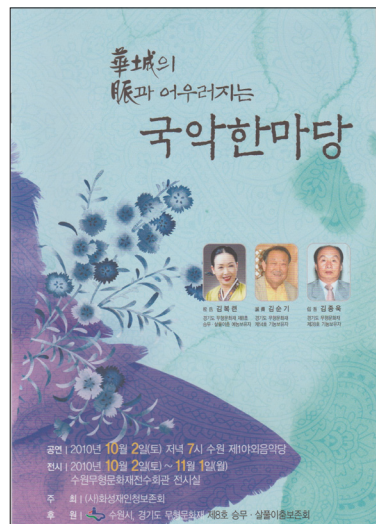
2008년



2009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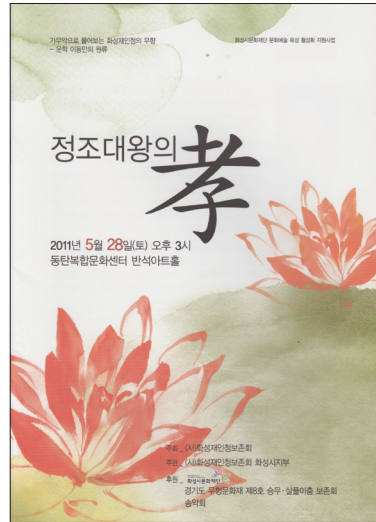
2009년



2010년



▶ 2010년



▶ 2011년



▶ 2012년



▶ 2013년

경기도무형문화재 제8호 송무·살풀이춤 예능보유자

松岳 김복련과 弟子百家의 **죽림**



2014. 6. 27(금) 오후 7시 경기도문화의전당 아늑한 소극장

출연: 김복련 / 제8호 이명숙 / 1인1품 최정숙, 김명숙, 박지혜, 이광숙, 이정숙, 이정숙, 이정숙

주최 | 경기도무형문화재 제8호 송무·살풀이춤보존회
후원 | 수원시 (사)화성재민정보존회 송악회 경기문화재단 경기문화재단

2014년

경기도무형문화재 제8호 송무·살풀이춤 예능보유자

松岳 김복련과 弟子百家의 **죽림**



2015. 10. 18(일) 오후 3시 경기도문화의전당 아늑한 소극장

출연: 김복련 / 제8호 이명숙 / 제8호 이명숙 / 제8호 이명숙 / 제8호 이명숙 / 제8호 이명숙 / 제8호 이명숙

주최 | 경기도무형문화재 제8호 송무·살풀이춤보존회
후원 | 수원시 (사)화성재민정보존회 송악회 경기문화재단 경기문화재단

2015년

경기도무형문화재 제8호 송무·살풀이춤 예능보유자

제17회 松岳 김복련과 제자백가의 **죽림**

2016.12.15(목) 오후 7시 30분
경기도문화의전당 소극장



주최 | 경기도무형문화재 제8호 송무·살풀이춤보존회
후원 | 수원시 (사)화성재민정보존회 송악회 경기문화재단 경기문화재단

2016년

경기도무형문화재 제8호 송무·살풀이춤 예능보유자

제18회 松岳 김복련과 제자백가의 **죽림**

2017. 11. 1(수) 저녁 7시 30분
경기도문화의전당 소극장



주최 | 경기도무형문화재 제8호 송무·살풀이춤보존회
후원 | 수원시 (사)화성재민정보존회 송악회 경기문화재단 경기문화재단

2017년



▶ 2014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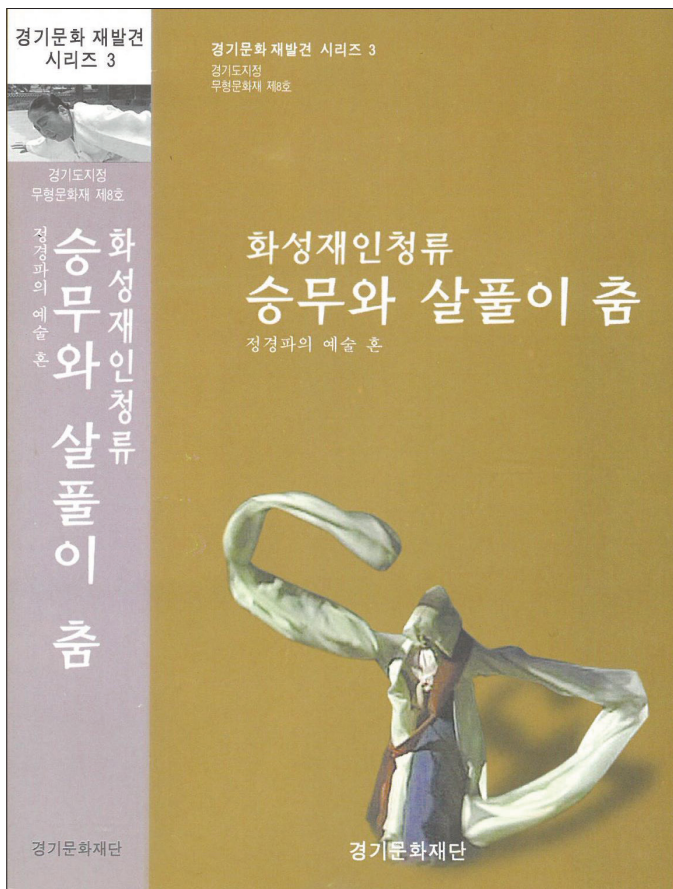
▶ 2015년



▶ 2016년



▶ 2017년



- ▶ 승무 살풀이 춤 기록영상(경기문화재단 제작, 경기학연구센터 홈페이지에서 시청 가능)



김복련

제8호 승무 살풀이 춤 보유자

“춤을 출 때 모든 상념이 사라지고 정신이 맑아진다.”

“살풀이춤은 이승에서 못다푼 다투고 저승길의 안을 달래는 춤으로 장엄하고 승고한 정신세계를 춤사위로 풀어낸다.”

“승무에서 고깔과 장삼을 벗는 것은 모든 액운을 벗어버리는 해탈을 의미한다.”

“나의 은사 정경과 선생님은 정말 친딸처럼 저를 아껴주셨어요. 언제나 화성 재인청의 춤을 복원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하곤 하셨죠. 저는 스스로의 유업을 받드는 것을 나의 평생 과업이라 생각하고 있어요. 딸이자 전수조교인 신현숙 단장이 재인청의 연구와 복원에 큰 힘이 되어 주어 마음 든든합니다.”

“창작무용을 하면 전통무용만의 호흡이 흐트러집니다. 그래서 저는 전통무용만을 고집합니다.”

주 소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매향동 117-1

수원시무형문화재 승무·살풀이춤 전수회관

전 화 : 031-254-5686

정 보 : www.kimbokyou.kr